

시멘트 · 콘크리트 관련 주요 뉴스 및 단신



건설경기 부진에도 상반기 시멘트 수요 호조

건설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조성 등 지방의 대형 공공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시멘트 수요가 예상외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건설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상반기동안 쌍용양회,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등 생산업체들이 내수시장에 공급한 시멘트는 모두 2,261만1,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133만1,000톤 증가했다. 이는 당초 관련업체가 예상했던 증가율을 2%포인트 정도 웃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현재 시멘트업체들이 안고 있는 재고도 137만9,000톤으로 작년보다 14.%나 감소했다.

시멘트 내수가 이처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산 등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데다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공공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 현장과 함께 당진 철강단지, 여천 등 서해 석유화학단지 등의 기초공사에 투입된 콘크리트 파일, 콘크리트관 등 시멘트 2차 제품용 소비가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수요가 부진했던 지난해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도 한 몫 했다.

시멘트업계는 상반기 내수가 증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4%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월 17일)

상반기 시멘트 물동량 전년동기대비 5.8% 증가

2012년 상반기 전국 항만물동량이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가운데 시멘트 물동량은 수출입 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상반기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총 6억6,835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항만물동량은 1억949만 톤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하였다.

2012년 상반기 주요 품목별 물동량 (단위 : 천톤, %)

품목별	유류	광석	유연탄	철재	기계류	자동차	화공품	모래	시멘트	기타
총물동량	195,361	60,700	55,892	50,206	42,113	31,478	27,606	26,857	20,216	157,942
전년동기 대비	2.6	7.2	-6.5	0.8	17.3	15.2	4.0	1.3	5.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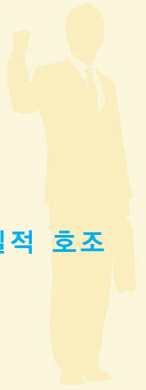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기계류, 유류 및 자동차 등 수출입물량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7%, 5.8%, 7.8% 증가하였다. 반면, 인천항과 포항항은 모래, 유연탄 등의 수출입물량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4.4%, 3.2%의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와 자동차 및 시멘트는 수출입 물량 증가에 힘입어 각각 전년동기대비 17.3%, 15.2%, 5.8%로 증가한 반면, 유연탄은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하였다.

한편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경기 침체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1,121만TEU를 기록하며, 지난해 이어 반기별 실적 1,000만TEU 이상을 처리하였다.

화물별로 보면, 수출입화물(676만TEU) 및 환적화물(424만TEU)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1.8%(11.8만TEU), 15.4%(56.6만TEU) 증가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였다. (7월 26일)



레미콘업계, 상반기 경영실적 호조

레미콘업체들이 시장 규모 감소 추세에도 경영실적 호조를 보이며 선방하고 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8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시장은 최근 5년간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연간 1억3,458만㎡에 달하던 레미콘 시장은 지난해 1억532만㎡으로 감소한 상태다. 올해에도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시장 규모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레미콘 업체들의 올 상반기 경영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하반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올 상반기 레미콘과 시멘트 등의 분야에서 매출액 4,110억원, 영업이익 185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레미콘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739억원, 16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11억원, 67억원 늘어난 수치다.

아주산업도 올 상반기 전체 매출액 1,543억원, 영업이익 132억원을 올렸다. 레미콘 사업 부문은 각각 1,127억원, 52억원을 기록했다. 레미콘 실적만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226억원, 영업이익은 26억원 늘어났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출하량 기준으로 아주산업의 지난해 수도권 지역 시장 점유율은 6.89% 수준이다. 유진기업(15.17%)과 삼표(14.23%)에 이어 3위다.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으로 보면 올 상반기 선방했다는 평가다.

쌍용레미콘도 올 상반기 매출액 1,354억원, 영업이익 21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 53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흑자로 전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8월 29일)

콘크리트혼화제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사

동반성장위원회는 9월 4일부터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본 심사에 착수한다고 건설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적합업종 신청이 접수된 제조업 품목은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동으로 만든 도관인 동버스바, 금융자동거래단말기(ATM), 콘크리트혼화제 등 9개다. 동반위는 이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콘크리트혼화제 조정협의체를 9월 4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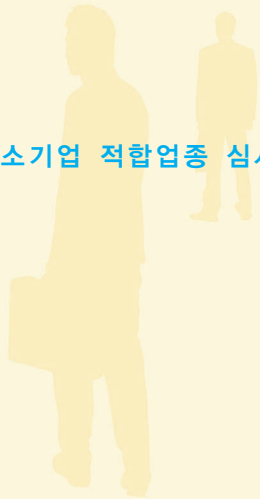
동반위 관계자는 "이들 9개 품목은 연내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7월 하순부터 접수하는 서비스업 분야 적합업종도 연내 가능한 많은 업종이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4일)

인도네시아, 시멘트산업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멘트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아주경제가 관영 안타라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영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평가 수산토 산업부 제조업국장은 "세금공제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새로운 시멘트 공장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도도 산토소 인도네시아 시멘트협회(ASI) 회장은 "아체와 그 주변 지역의 경우 현지 안달라스 시멘트 공장이 전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멘트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 국장은 "시멘트 업계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그린산업 정책을 실현하는데 계속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석탄을 고온 처리한 클링커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도도 회장은 “클링커 비율을 10% 낮추면 시멘트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도 10%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클링커 비율을 줄여도 국가표준(SNI) 상 시멘트 강도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5월부터 2025년까지 세계 10대 경제대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시행하고, 핵심 사업으로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25일)

대형공사 발주 올해보다 180% 급증, 건설업계 청신호



내년에 대형 공사 발주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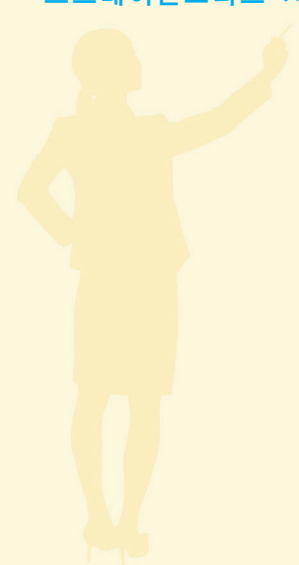
8월 22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입찰방법 심의자료 분석 내용을 살펴본 결과 내년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 발주 물량이 올해보다 180%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입찰방법 심의제도란 추정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 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저가와 공사 수행 방식에 대해 심의를 받게 하는 제도다. 심의를 거친 뒤 발주 설계와 적격심사(PQ), 현장 답사 등을 거쳐 실제 발주가 이뤄지기까지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찰방법 심의 현황이 곧 발주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감소세였던 대형 공사 입찰방법 심의 물량이 올해 들어 반등했기 때문에 내년 공공 건설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했다. 2009년 519건이던 대형 공사 심의건수는 2010년 303건, 2011년 190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340건으로 늘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와 주한미군부대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 부문 발주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년에 발주하는 사업장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10개 공구, 원주~강릉 철도 건설 11개 공구, 주한미군부대 이전 12개 공구, 세종시 청사 설립 11개 공구 등이다. 발주 기관별로는 국방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이 전년대비 277%(78건), 국방부는 전년대비 300%(1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9일)

스프레이콘크리트 시공시스템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새로운 ‘스프레이콘크리트 시공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한국주택신문이 보도했다. 현재는 스프레이 콘크리트에 대한 규정화된 시공지침이 없으며 시공 장비 부족, 스프레이 콘크리트 배합에 대한 검증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갭도 내 스프레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질 우려가 크다는 게 건설연의 설명이다.

또 대부분 광산업체가 비용 문제로 현장에 광산 갭도 지보용 콘크리트 생산시설 설치에 난감해 해서 품질 관리가 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건설연은 규모가 큰 광산 갭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프레이 콘크리트 지보시공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이동식 믹서(Mobile Mixer)를 활용한 스프레이 콘크리트 시공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이동식 믹서는 차량에 탑재돼 광산 갭도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 현장에서 원하는 배합의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스프레이 콘크리트의 휨 인성을 높여 갭도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연 마상준 연구위원은 “광산 갭도 현장에서 사용될 지보용 스프레이콘크리트 품질과 강도를 높여 규모가 큰 광산 갭도 내 작업 안전성도 훨씬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월 24일)